

벼 대신 다른 작물 심는 농가에 보조금... 쌀 소비 확대를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대선 지지율 변화 최대 이슈

26~28일 산유국 회담도 주목

시가총액 상위종목 강제 이어질 듯

풍년은 들었지만 호남 농심에는 얼룩이 지고 있다. 시중에 쌀이 넘쳐나 제값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쌀 소비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4년 연속 풍년이 들어 더욱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양곡 창고마다 재고가 수북해지면서 쌀값은 바닥을 모른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야 할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풍년의 역설'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등장한다.

◇소비 감소 지속=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으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g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공깃밥 2그릇도 먹지 않는 셈이다.

1985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해 128.1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30년만인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kg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쌀 생산은 여전히다. 논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지만,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고 재배기술이 향상되면서 쌀 수확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420만t으로 추정했다. 벼 재배면적은 77만8천734ha로, 작년(79만9천344ha)보다 줄었지만, 기상여건이 좋았고 병해·태풍 등이 비껴가면서 벼 이삭이 풍성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쌀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햅쌀 가격은 80kg 1가마당 13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졌다. 소득이 줄어든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t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133만t)보다 42만t 많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t)을 2배 이상 웃돈다. 보관비만 한해 5000억원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적정 수요량보다 35만t 많은 쌀이 초과 생산될 전망이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귀하게 대접받던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는 남아도는 쌀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소비 확대방안을 고민해 왔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외국 원조를 쓰거나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중국 등에 수출이 추진되고, 묵은 쌀은 올해부터 가축 사료로도 제공된다.

그러나 만지작거리는 정책마다 번번이 헛바

'풍년의 역설' 천덕꾸러기 쌀... 해결책 없다

소비 감소 불구 올 생산량 420만t 추정

대북지원 안 되고 외국 원조 헛바퀴

재고량 175만t 보관비만 연 5천억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카드도 논란 많아

취만 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금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당장의 대북 지원은 불가능해 보이고, 외국 원조 역시 만만찮은 가용·운송비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10만t을 외국에 원조할 때 2400억원의 가용·운송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보관비(316억원)보다 8배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무상으로 쌀을 대주는 방안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무상 공급분만큼 시장 소비가 사라져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묵은 쌀을 가공식품이나 가축 사료로 무한정 공급하기도 힘들다. '쌀의 가치를 떨어뜨린

다'는 지적이 이는 데다, 쌀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농식품부도 이런 조치가 일시적으로 쌀 재고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쌀 생산을 줄이고, 국민에게 밥을 더 먹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절대농지 해제 등 논란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 생산기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농지를 줄여야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인 데다, 땅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를 한번 다른 용도로 바꾸면

논으로 되돌리기 힘들고, 흉년 들거나 국제곡물 가격이 오를 때 쌀값 폭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지난 22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진흥지역을 정부가 앞장서 풀 경우 농업 투자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고민스러운 속내를 내비쳤다.

농민단체도 "진흥지역 해제는 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식량자급률(20%대)을 유지한 국가에서 식량 생산기지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벼 이외의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 쌀 생산을 줄여야 하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쌀 농가를 지원하는 직불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쌀 농가에 일정액의 고정 직불금을 주면서,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주는 지금의 직불제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의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조건단 레시피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해마다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북 지원을 다시 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사진은 최근 담양군 수북면 들녘을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협전남본부, 김영란법 준수 결의·실무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화순군 한이울문화센터 적벽실에서 전남, 전북, 광주관내 농협총 연합업무 담당 책임자 260여명이 모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및 실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의 청탁금지법 준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낡은 업무관행을 일소하고, 농업인의 대표 협동조합으로서 청탁금지법

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적극적인 준수를 위해 농협 중앙회 준법지원부 담당 변호사가 진행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농협중앙회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농협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p>평택 토지 전문 (평택 신도시 530만평) (한덕지구70만평)</p> <p>※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p> <p>평택 토지 매매</p> <p>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 매가 5억 8천 235만</p> <p>②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평당 35만) ▶ 매가 7억 8천 178만</p> <p>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 매가 8억 5,250만</p> <p>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 매가 3억 7천 680만</p> <p>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 매가 5억 2천</p> <p>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처 추천 / 193평 ▶ 매가 12억 6천만</p>	<p>평택 경매 전문</p> <p>■ 현덕면 화양리 (농지) → 토지 4,522㎡ → 당현마을 위치, 농로 물림 ■ 감정가 22억 → 최저가 7억4천4백</p> <p>■ 진위면 동천리(임야) → 토지 25,172㎡ → 동천 보건소 인근, 차량접근가능 ■ 감정가 16억 → 최저가 11억</p> <p>■ 오성면 양교리(근린시설) → 토지 19860㎡, 건물 2376㎡ → 자동차 영업소, 오성산업단지 인근 ■ 감정가 53억 → 최저가 37억</p> <p>■ 평택시 이충동(의료시설) → 토지 8878㎡, 건물 2132㎡ → 아파트밀집지역 ■ 감정가 14억 → 최저가 10억</p> <p>■ 청북면 백봉리(공장) → 토지 3624㎡, 건물797㎡ → 원백마을 인근 ■ 감정가 15억 → 최저가 10억</p> <p>■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공장) → 토지 1,205평 건 654평 → 마산상거리 인근 ■ 감정가 30억 → 최저가 21억</p> <p>◆ 경기도 평택시</p> <p>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p> <p>※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p> <p>※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p> <p>◆ 경기도 화성시</p> <p>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p> <p>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처 최고의 도시)</p> <p>※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p>	<p>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p> <p>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p> <p>●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p> <p>▶ 매가 8천 500만</p> <p>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p> <p>■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p>	<p>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p> <p>★ 경매 물건 추천 ★</p> <p>① 서구 치평동 (10층 오피사상가) 토 25평, 건146평 10층 중 10층 (상무지구 최고 변화가 위치) ▶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4억9천</p> <p>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9평 신가중 부근 룸 8개 - 월수익 250만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p> <p>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p> <p>경매교육</p> <p>■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천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천 교육 ☆ 바로 실천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정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직원 구함</p> <p>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천 경험자 우대, 환영</p>
--	--	--	--

010-7384-7800

010-6670-9800

062-527-7600

010-6834-4800